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벧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이종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558-2107 www.seoulchurch.or.kr



의인의 기도

(시편 17:1-15)

시편은 시의 형태 또는 장르를 따라 구분합니다. 찬양시, 애가, 감사시, 기쁨시, 지혜시, 메시아시 등이 그것입니다. 시편 17편은 애가입니다. 절망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친다. 아히멜렉을 비롯한 놈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사울 왕에게 몰살 당했다는 비보를 접한 다윗이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것이 바로 시편 17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꼭 들으셔야 한다는 애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께서서는 의인의 삶을 산 다윗을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힘이 있고 확고하고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힘 있는 기도는 풍성한 성령으로 유창한 언변의 산물이 아니라 무흠한 생활과 자신의 유약함을 아는 겸손과 능자에게 대한 철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결백한 자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 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여 귀를 기울이소서”(1절).

다윗은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간음죄, 살인죄와 같은 악질적인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한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원수들이 공격할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시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시인이 자신을 정의롭고 진실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과 정성을 쏟아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2절).

다윗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한 것이 결코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3절).

시인은 낮에는 물론이거니와 밤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흠을 찾지 못하셨을 정도로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사 59:1-2). 죄는 기도의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내가 내 종 읊을 주 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욥 1:8). 하나님은 읊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욥 42:8).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불순종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도덕법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낱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도덕질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이기심은 없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의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형제와 화목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택한 우선권은 질서를 따른 것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살펴본 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2.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기도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8절).

시인은 자신을 유약한 눈동자와 하나님의 날개 밑에 있는 병아리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유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더욱 더 그를 지켜주십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7절).

사랑은 히브리어로 ‘케세드’입니다. ‘케세드’는 선택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의 고개를 넘어갈 때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6절).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3.위험이 올 때 드리는 기도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9절).

위험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를 해하려는 원수가 있을 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위기를 직감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교회 봉사를 멀리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위기가 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같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4.다윗의 마지막 호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시인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그들 후손에게 물려주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14절). 처세적인 행복만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현세적 부귀와 번영만을 유일한 분깃으로 알았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부귀영화를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꺾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15절).

시인은 장차 하나님 면전에서 자신의 의로움이 증명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환난의 밤이 밝아 주님을 뵈는 그 일이 시인으로서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약 5:16).

하나님께서서는 의인의 삶을 산 다윗을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힘이 있고 확고하고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힘 있는 기도는 풍성한 성령으로 하는 유창한 언변의 산물이 아니라 무흠한 생활과 자신의 유약함을 아는 겸손과 능자에게 대한 철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며 겸손한 자세로 기도 하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임명식 시작된다

오늘은 서리집사 및 교구일꾼 임명

교구총회: 3부 예배 후 본당

2006년도를 섬기며 봉사할 일꾼들에 대한 임명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서리집사와 교구일꾼은 오늘 주일에 배 시간에 임명받게 되고, 교구일꾼은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열리는 교구총회에 참석하게 된다.

임명받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와 감사함으로 임명받

아 교회에 덕을 세우고 개인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2006년도 서리집사 명단은 오늘 주보에 간지로 삽입되어 있다.

각 위원회 및 기관별 임명식 스케줄은 다음과 같다.

일자	위원회/기관
12월 4일(주)	서리집사 및 교구일꾼(1,2,3부)
12월 7일(수)	수요예배: 은빛, 시온
12월 11일(주)	1부예배: 가브리엘 2부예배: 할렐루야, 그레이스, 호산나 3부예배: 임마누엘, 아멘, 필그림 찬양예배: 베들레헴, 갈렙, 글로리아, 섬김위원전원(안내, 헌금, 계수, 찬양대양성반,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예비지휘자, 예비오르가니스트, 예비피아니스트, 기획위원회, 전도위원회, 70인전도대, 선교위원회, 구제위원회, 재정위원회, 관리위원회, 차량관리부, 식당관리부, 장학회, 멀티미디어단, 교회갱신연구원, 살롬경로대학, 주부대학, 비전2020, 예전부, 상조부, 성례부, 도서실, 목회자세미나, 상담부, 순례자, 출판국, 살롬권사회, 권사회, 스테반회, 제직회, 감사)
12월 18일(주)	1부예배: 교육1국 2부예배: 교육3국 3부예배: 교육2국, 4국

2006년 순결서약식 접수 시작

2006년 1월1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실시

서울교회는 13세 이상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레11:44)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오는 2006년 1월1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순결서약식을 갖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아직 순결서약을 하지 않는 13세 이상 미혼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순결서약식 참가 신청을 받는다. 참가 신청서는 각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와 사무국에 비치되

어 있으며 접수는 12월25일(주)까지 받는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 질서, 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이종운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우리교회가 가장 먼저 1995년 첫 주에 서약식을 개최한 이래 12년째 계속하여 거행하고 있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항상 순결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부모와 후원자의 지원으로 '순결반지'가 주어진다.

헌당감사헌금으로 근복음화와 구제의 덕을 세우다

12월2일(금) 관계기관에 전달

지난주일 예배당을 헌당 하며 드린 헌당감사헌금을 근복음화를 위한 사랑의 온차 나누기 운동과 경기침체로 더욱 춥고 어려운 이때 연탄불도 제대로 피우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연탄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지난 12월2일(금) 구제위원장 윤봉준 장로와 기획위원장 노문환 장로, 재정위원장 오정수 장로를 대표로 근선교연합회와 총회를 방문, 각각 2천만원씩 헌금을 전달하여 추운 연말연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이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암송필사성경배포

2050명이 기록한 서울암송성경필사본이 필사에 참가한 가정별로 1부씩 교구를 통해 지난 금요일(2일)부터 배포되고 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의 가보로 간직하여 자랑스런 서울교회를 이 성경을 통해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다.

새가족 환영회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강성희 강영민 구다원 권애련 권영미 김가례 김경수 김경철 김경한 김기범 김명선 김미선 김미숙 김미옥 김민지 김복순 김분이 김선택 김성남 김성우 김성철 김소영 김연경 김연목 김은경 김은희 김정숙 김정옥 김종례 김주용 김준수 김지연 김지창 김태완 김한길 김희연 남태운 노영수 류현지 문정심 박건호 박광서 박금숙 박봉수 박수미 박순선 박승혁 박재현 박지수 박진아 배희운 백경화 서정숙 엄순재 오혜정 우일환 우혜원 원미선 원재신 위혜경 유경자 유미례 유승철 윤만현 윤여경 이다솔 이도희 이동귀 이동운 이석영 이석훈 이선화 이성기 이성태 이숙영 이승재 이승협 이유미 이은수 이재운 이지우 이지현 이진화 이창원 이 휘 임규현 임지선 임지영 임진호 장석만 장정석 장호립 전미애 정점숙 정지영 조민웅 조수현 조윤정 조혜선 재정석 최은정 최준호 최현미 최현주 한은복 한해경 홍현우 황봉자 이상 109명

찬양대양성반 수료

7주간 계속되었던 제11기 찬양대양성반이 오늘 수료한다. 찬양대양성반은 우리교회 찬양대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찬양대원으로 갖춰야 할 기초를 배우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수료한 성도들은 본인이 원하는 찬양대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할 수 있다.

오늘 수료하는 이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경미 강창숙 김경희 김광룡 김영숙 김옥준 민 희 박길자 배준길 백승갑 서정여 서정현 소만수 손병석 송미령 오천수 유미심 윤동선 이근형 조상환 조영주 채여숙 최성욱 하영수 황병석 황혜련 (이상 26명)

방송 설교 채널 변경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채널 중 CBS(기독교방송) 위성채널 162번이 412번으로 12월1일 부터 변경되었다.

2006 일꾼들에게 듣는다.

새로운 시점에서...



최금자 권사 (2006살롬권사회장)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은퇴권 사님들의 모임인 살롬권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건강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순간 두려움이 앞섰지만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3)”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직임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 살롬 권사회는 육신은 비록 연약하여 될 수 없

고 겉기에 불편하여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한 무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맑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어머니요 할머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서 모이는데 힘쓰며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이 모든 일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서로 권면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살롬권사회 권사님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아름답고 웅장한 예배당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복을 누리 성도답게 이웃의 등대가 되고 민족의 구원선이 되어 세상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살롬 권사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영의 권사(2006권사회장)

전 교인의 기도와 헌신 속에서 사랑하는 서울교회를 온전히 주님께 바친 감격을 마음 속에 간직하는 이즈음입니다. 안정 속에서 찾아올지 모를 내태함을 늘 경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더욱 풍성히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권사회 회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부여 받게 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저의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감사함으로 맑은 사명에 최선을 다하겠노라는 다짐을 해 봅니다.

지금의 서울교회가 있기까지 기도의 어머니로서 헌신의 모범을 보이신 선배 권사님들을 본받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능력 안에서 교회와 목회자님들 섬기며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권사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전교인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권사회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각오와 헌신으로 봉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과 같은 겸손의 봉사를 할 것이며 사랑으로 수고하고 희생하며 베푸는 기쁨의 봉사를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연합하여 하겠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터 닦고 튼튼히 지은 서울교회가 이웃을 위해, 세계를 향해 더욱 큰일들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맑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권사회가 되겠습니다.



김영주 집사(2006 스테반회 간사)

무익하고 부족한 종에게 스테반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일을 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기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성실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여로보암에게도 “내가 만일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고... 네 집을 견고히 하리라” 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신앙과 행위의 모범으로 다윗의 행함을 본받으라고 하셨음을 상고 합니다.

다윗은 사람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에 의해

서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등에게 다윗의 행함 같이 하라고 하신 것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스테반회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국가적으로 또 가문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골리앗과 같은 모든 우상제도를 훼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어느 것이나 봉사직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주께 하듯 부족하지만 기쁨으로 교회와 스테반회를 섬기며, 스테반회는 교회를 지극히 충성으로 섬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민에게 전도
-70인전도대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강승용 집사(교구)



수년 전에 공직생활을 은퇴하고 서울교회 등록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집에 가까운 서울교회 뜰을 밟고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에 나온 첫 날이 입당예배를 드리던 날이었으니 어언 5년이 되었습니다. 우연이란 단어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멀리 다른 교회로 출석하던 저와 서경애 집사, 아들과 자부, 딸 그리고 손녀까지 온 식구들이 아름다운 서울교회로 불러 주셨습니다.

저는 10월 15기 전도학교를 수료하고 70인 전도대 수료야간전도팀에서 선배 대원들과 아내와 같이 전도를 합니다. 그전엔 전도라곤 의도적으로도 해보지 않던 내가 요즘 들어 지칠 줄 모르고 전도에 힘쓰게 된 것은 먼저 전도활동을 해오신 선임 대원들의 열심에 많이 도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한 밤에 컵라면, 차를 마시러 들어오는 사람들을 붙잡고 기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말해 줄 때 그들이 조용히 듣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신이 나는지 피곤이 눈녹듯 사라집니다.

전도활동 후 뒷정리가 끝나고 집에 도착하면 거의 자정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때가 많지만 한 사람을 구원하면 그 온 가정이 구원되고, 그 온 가정이 구원 얻으면 나가서 나라와 세계가 복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 역사를 생각하면 피곤은 고사하고 무언지 모를 큰 기쁨에 휩싸이게 됩니다.

또 지난 2개월간 제2기 세계선교대학을 공부하는 동안에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교회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하시는 무언의 봉사를 배우며 어려운 여건과 환경에서도 선교사님들이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통과 마귀들의 방해로 막는 방법은 오직 기도이며 우리가 계속 관심과 기도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70인 전도대에서 전도활동에 집중하여 복음에 빛난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족 모두가 늘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가정으로 태어나기를 소원하며 전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순례자 특별기고

배아줄기세포 파괴는 살인



권재현(청년부)

지난달 24일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는 이른바 '난자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줄기세포 연구 과정에서 매매된 난자와 소속 연구원의 난자가 사용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당사자가 원치 않아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 발표는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자신은 몰랐다고는 하지만 매매된 난자를 연구에 쓰는 일, 또 자신의 수하에 있는 연구원의 난자를 쓴 일은 외국 과학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윤리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논란은 사실상 "연구과정상의 윤리문제"로, 그동안 제기된 일반적인 '줄기세포'의 윤리문제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다면 생명공학 연구에서 일반적인 윤리적 쟁점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인간복제'에 대한 우려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시작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이다.

우선 '인간복제'는 이미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복제 동물의 탄생 과정을 보면 대부분 대리모의 자궁 안에서 정상적인 개체로 발생되지 못하며, 태어나더라도 절반 이상이 하루 안에 죽는 것이 현대 과학의 수준이기 때문이다. 황 교수도 '인간복제'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비정상 집단이 아니고서는 '인간복제'는 시도할 리 없다.

하지만, '생명의 시작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각 나라와 과학계, 그리고 기독교계의 입장이 크게 엇갈린다. 이 생명의 시작점 논란은 주로 '줄기세포'를 얻는 과정에서 촉발된다.

줄기세포란 여러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초기단계의 세포를 말한다. 줄기세포의 분화과정을 잘 조절하면 사람의 근육이나 피부, 뼈 등을 만들 수 있다. 이 줄기세포는 두 종류다. 일반인의 몸에 있는 '성체줄기세포'와 정자와 난자의 수정 후 만들어지는 '배아줄기세포'다. 이 가운데 분화능력이 제한적인 성체줄기세포에 비해 배아줄기세포는 다양한 장기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난치병 치료에 중요한 열쇠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배아줄기 세포를 얻는 방법이다. 배아 줄기세포를 얻으려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배아 안에서 줄기세포를 끄집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배아를 파괴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수정 후 분화 14일 이전의 배아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파괴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미국도 연방정부는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을 더 이상 안 하기로 했지만 민간 차원의 연구 지원 규모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이런 논란에 대해 황 교수는 자신이 만들어낸 '체세포 복제배아'는 일반적인 '배아'와는 다르다고 주

장한다. 즉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난자 안에 든 핵을 체세포 핵으로 바꾸는 기술을 쓴 것이기 때문에 생명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황 교수의 '체세포 복제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연구는 한국과 영국, 그리고 미국의 4개 주정부 부가 허용을 하고 있다. 나머지 나라도 지금까지는 규제해왔으나 점차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하여, '생명의 시작점'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은 확고하다. 지난 10월 한기총 신학위원회(위원장 이종윤 목사)는 줄기세포 연구논란에 대한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인간 배아는 그것이 배아든 '체세포 복제배아'든 '생명'이기 때문에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파괴하는 연구에 반대한다. 그 대신 기능이 더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 '과학'은 그것이 생명체와 관련된 것이든 아니든 모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세상의 원리를 확인하고 이용 방법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 '줄기세포'도 하나님의 수많은 작품 중 하나일 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따라서 이제 겨우 그 비밀이 밝혀지고 있는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줄기세포' 그 자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계의 관심과 방향제시가 필요하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계 생명공학 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가 있어야 하겠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8일(목) 총회 교육부 주관 기독교교육 겨울성경학교 지도자 세미나 및 새교육 과정 교재 개편 설명회에서 특강을 한다.
- 개업 : 원영에 집사(12교구) 에바빌코리아(주) 송파구 방이동 22-5 잠실리시온빌딩 1824호 T. 420-1984,1985
- 주간식당 봉사: 뱀비전교회(12월4일) 마리아전교회(12월11일)
- 금주의 식사: 이종윤 목사 가정 (현당을 감사하며)

2006년 농어촌100교회 운동 후원자 모집

서울교회는 민족복음화의 일환으로 한국교회 부흥의 터전이었던 농어촌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농어촌100교회 운동을 계속 전개해 오고 있다.

작년부터는 총회의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정책에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다. 교회내의 개인, 가정, 기관, 단체는 약정된 구좌를 후원함으로 미자립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는 1구좌를 10만원으로 하는 일정 구좌(1/2구좌도 가능)신청서를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개인이나 단체가 후원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이 있을 시 지정 신청하여 교회를 통해 후원을 할 수도 있다.

2006년도 목회정책 협의회

12월9일(금)-10일(토) 양일간

새해 목회방향 설정을 위한 목회정책협의회가 9일(금) ~ 10일(토) 이틀간 경기도 포천에서 당회원 전원 참여 하에 이루어진다.

교역자와 장로들의 모임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고 비전 제시가 확실해지는 회의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위성 CH 41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독교 TV - (http://www.cts.tv) 중국어 인터넷방송 - (http://www.c-highway.com)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케 하소서
2. 임명받는 일꾼들이 성령충만하도록
3. 2006년도 목회정책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4.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과 북한 땅의 신앙 자유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교회오시는 길

